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87 | APRIL 2021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4월호 / 통권 287호

발행일 2021년 4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87 | APRIL 2021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전례와 생활	16 타인을 위해 사는 삶으로의 초대 20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4 기도학교 30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유리 17
신앙과 삶	34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남기!
듣다 읽다 보다	36 고전음악을 듣다 42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0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6 티나씨의 티비보기 58 성미술 이야기
News & Views	61 후원방법 및 소식



THE COVER

청양 다락골 무명순교자 묘지



“그리스도 우리의 빛(Lumen Christi)”

예수님의 부활을 『가톨릭 직장인』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온 생애를 통해 보여준 모든 말씀과 행적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자, 예수님이 하느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현존하는 존재로 탈바꿈하셨습니다. 역사적 인물이 역사를 초월한 존재가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비취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했습니다. 바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공동 운명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 때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비취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자면 실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고통으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2,000여 년 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거두실 것으로 믿습니다.

『가톨릭 직장인』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노우식 신학교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최양업(4) : 서품, 입국 그리고 성무활동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양업은 1836년 유학길을 떠나서 1850년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14년간의 해외 유학생생활을 했다. 유학기간동안 스승 신부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중요 대목만 모아본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유리한 상태에 있고 천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조선 포교지를 위해 유익한 몸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1839년 8월 11일, 리브와 신부).

“브뤼니에르 신부는 우리와 남은 조선 학생(최양업)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학생에게서 많은 재능, 무엇보다도 좋은 판단력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1842년 4월 1일, 리브와 신부).

“토마스는 북쪽 지역에 저와 함께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계속하는 그는 대단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한 살만 더 많았다면, 아마 그를 올해에 서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1843년 2월 20일, 페레올 주교).



최양업 신부님 초상화 | 제공: 평화신문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맘의 증거자

최양업(4) : 서품, 입국 그리고 성무활동

정말 스승들이 예상했던 대로 최양업은 조선에 들어와 11년 6개월간 교우촌 신자들의 영신적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로 살아갔다.

1844년 12월 최양업과 김대건이 부제서품까지만 받았던 것은, 당시 교회법상으로 만 24세가 지나야했기 때문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김대건이 먼저 최양업보다 사제서품을 받은 것은 조선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 페레올 주교의 요청에 대해 김대건 부제가 더 빨리 부응했기 때문이다. 바로 1845년에 배를 타고 서해 바다를 건너 상해에 도착했고, 김대건이 먼저 사제서품을 받고 ‘라파엘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간 것이다.

최양업 부제 역시 하루 빨리 조선에 들어가 고자 노력했다. 1846년 초 훈춘을 통해 조선에 들어가려다가 만주 관헌에게 체포되어 위협을 당했고, 그 다음해에 다시 책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했지만 박해 소식만 듣고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1847년 초 페레올 주교로부터 온 편지로 동료인 김대건의 순교 소식을 들었다. 바로 그 해에 마카오에 있었던 파리외방 전교회의 극동대표부는 홍콩으로 이전하였다. 최양업 부제는 홍콩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사전도 없이 페레올 주교가 프랑스어로 보낸 기해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행적을 라틴어로 옮겼다. 그것이 후에 79위 복자가 탄생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순교자행적’에 관한 기록물이 되었다. 최양업은 다시 해로를 통해 조선에 입국하려고 노력하다가 고군산도 부근에서 난파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최 부제는 마침내 1849년 4월 15일 상해에서 예수회의 마레스카 주교에 의해서 사제 서품을 받게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백령도를 거쳐 들어가는 해로로 조선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선 신자를 만나지 못하고 입국이 좌절되자, 눈물을 흘리며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때 사제로서 처음으로 남긴 편지에는 유학시절에 가졌던 평소 그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 제가 거룩한 순명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였더라면, 저는 벌

써 우리 포교지인 조선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저세상에서 신부님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저의 장상이 명하시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1849년 5월 12일).

그렇게 유학 시기의 최양업은 교회와 스승에게 순명하는 삶을 살았다. 최 신부는 베르뇌 신부 앞에서 중국 의례에 대한 서약을 마치고 만주대목구 지역에서 첫 성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7개월 동안 그는 중국 신자를 대상으로 성사 집전을 하고 미사 때 강론을 하였으며, 병자 방문, 교리 교수 등의 성무 활동을 수행했다.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 만주지역의 중국인 신자를 대상으로 한 첫 해외선교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양업 신부는 12월 말에 육로를 통해 조선에 입국하였다. 함께 들어가고자 했던 매스트르 신부는 검문의 위험 때문에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최양업 신부는 여섯 번의 입국 시도 끝에 처음으로 성공하였고, 마침내 유학 14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최 신부는 돌아오자마자 다블뤼 신부에게 병자성사를 주고, 페레올 주교의 명에 따라 주로 남부지역의 험악한 산악지대 교우촌을 중심으로 성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6개월 가량 쉬지 않고 남부의 다섯 개 도에 걸쳐 사목 순방을 한 거리가 대략 오천 리 정도였고, 만나 본 교우수는 3,815명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숫자는 험악한 산골 교우촌을 찾아다니는 초행길이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활동은 새 신부의 초인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그 이듬해에 5,936명의 교우들을 방문하였는데, 이 숫자는 당시 조선신자의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 그렇게 해마다 4천여명이 넘는 교우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성무 활동을 거행하였다. 최양업 신부는 매해 사목방문을 끝내고, 9-10월 사이에 스승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사목활동과 신앙 체험을 보고하였다.

첫해의 사목 방문을 끝내고 그는 스승 신부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맘의 증거자

최양업(4) : 서품, 입국 그리고 성무활동

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저는 교우촌을 두루 순방하는 중에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 단 한 번이라도 사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큰 은총입니다. ... 어떤 사람들은 저를 못 떠나게 붙들려는 듯이 저의 옷소매를 붙잡고, 어떤 이들은 제 옷깃에 그들의 애정 정표를 길이길이 남기려는 듯이 제 옷자락을 눈물로 적십니다. ... 세속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담배와 조를 심으며 살아갑니다”(1850년 10월 1일).

최 신부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조선에서 첫해를 보내면서 스승에게 편지 말미에 두 가지 청원을 써 보냈다. “비위생적인 물을 개량할 처방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나라에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 평야어나 산골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민들은 실성하거나 간질에 걸리고, 피 섞인 가래침이 나오며, ...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질병이 물의 비위생 상태와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 신자들은 성물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불같습니다. ... 상본은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 요셉, 세례자 요한, 사도들, 성 학자들, 그 밖의 성인 호칭 기도에 나오는 성인 성녀들의 상본이면 됩니다”(1850년 10월 1일).

이처럼 교우촌에 어렵게 살며,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과 신자들이 좋아하는 성물을 구입해서 나누어주고자 노력했다.

첫해를 그렇게 6개월동안 쉬지 않고 사목방문을 했던 최양업 신부는 그 다음해에는 10월부터 시작하여 8개월동안 더 많은 신자들을 찾아갔고, 연말에 스승에게 쓰는 편지에서 조선의 전교활동을 위해 마련된 두 가지 발명품에 대해 전하고 있다. “... 조선의 모든 법과 습관과 풍습은 한결같이 교회법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오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의 초상부터 탈상까지 입어야 하는 상복의 풍속과 한글이 전교 활동과 교리 공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첫째, 상복이 전교 활동을 도와주는 풍속입니다. ... 방갓을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덮어서서 땅만 버려다 볼 수 있게 하고, 또 얼굴 가리개로 입에서부터 코와 눈까지 얼굴 전체를 전부 가리고 다닙니다. 이러한 풍속은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을 위하여 발명된 도구라 할 만합니다. ... 둘째, 한글이 교리 공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은 열 개의 모음과 열네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우기가 아주 쉬

워서 열 살 이전의 어린이라도 글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이 사목자들과 신부님들의 부족을 메우고 강론과 가르침을 보충하여 줍니다.”

최양업 신부는 한글조차 깨우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 ‘천주가사’를 통해 구전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고, 그것이 ‘사향가’라는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

묵상

찾아가는 사목을 하셨던 최양업 신부님에게서 우리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 올 한해 “내가 먼저” 실천하는 계획을 세워보자.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2,8)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 티모테오에게 둘째 서간을 쓸 때의 상황

사도 바오로는 황제 네로의 박해로 또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이때 주변에 있던 많은 신자들이 사도 바오로의 곁을 떠났습니다. “피겔로스와 헤르모게네스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저버렸습니다”(2티모 1,15) 바오로는 점차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티모테오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2티모 1, 3-4)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기에 일종의 유언으로 티모테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신앙의 권면을 하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잘 견디고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가 사목자로서 장차 겪게 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2.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의 믿음에 대한 격려

티모테오의 굳건한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비롯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2티모 1.5)

사도 바오로는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티모테오의 됃됨이와 신앙의 자세가 그의 열심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이스와

에우니케, 그리고 티모테오에 이르는 삼대에 걸친 믿음의 고리는 이들을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를 일치시키고 있었습니다. 티모테오의 경우에서처럼 신앙 역시 한 사람의 영혼에서 다음 세대의 영혼으로 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신앙을 대대로 꽃 피워 가는 티모테오의 가정은 그야말로 신앙인 가정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티모테오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

로이스와 에우니케는 다른 열심한 유대인 가정처럼 티모테오를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티모테오는 일찍부터 히브리 성경과 기도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학습과 배움이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점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에우니케 모녀는 어린 티모테오에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미리 준비시킨 셈이었습니다. 이들 모녀는 티모테오의 큰 사목적 결실을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티모테오 뒤에서 돕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훌륭한 사목자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와 희생으로 사목자의 큰 용기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4. 믿음의 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를 성숙시키며 자녀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자유를 베푸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 자신이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신자의 가정은 믿음을 계승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

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험난한 세상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5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의 내용

- 1)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과 함께 복음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1장)
- 2) 복음 전파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음 전파자에 대한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과 자격과 자세, 사명등을 다루고 있습니다.(2장과 4장)
- 3) 복음의 보호에 대해 언급하며 마지막 때의 타락상을 언급하고, 마지막 지시로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지니도록 가르칩니다.(3장)

한달 동안 성경일기

<input type="checkbox"/> 1주간	<input type="checkbox"/> 2주간	<input type="checkbox"/> 3주간	<input type="checkbox"/> 4주간
티모 1장	티모 2장	티모 3장	티모 4장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 ① 티모테오의 믿음은 누구와 누구에게 물려받았나요? (1,5)
- ② 나는 그대의 ()을 생각하면서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1,4)
- ③ 사도 바오로를 떠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누구인가요? (1,15)
- ④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 있는 것을 개의치않고 로마에 와서는 열심히 찾아 만나주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1,16)
- ⑤ 진리에서 빛나가,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몇몇 사람의 믿음을 망쳐 놓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2,17)
- ⑥ 주님의 ()은 싸워서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잘 가르치며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자들을 ()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2,24-25)
- ⑦ 내가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과 ()에서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박해를 견디어 냈던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3,11)
- ⑧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한 책은 무엇입니까? (3,16)
- ⑨ ()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쁜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4,2)
- ⑩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사도 바오로를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4,10)
- ⑪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포스의 집에 두고 온 물건중에서 가져오라 부탁한 물건들은 무엇인가요? (4,13)

타인을 위해 사는 삶으로의 초대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성품성사의 우선적인 목적은 서품자 개인의 성화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 직무를 위탁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식에서 드러나는 ‘안수’와 ‘성령을 청하는 기도’는 서품이 단순한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행동하신다는 교회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 스스로 서품 후보자를 직무에 임명하고 성령을 수여한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품성사는 직무에로의 임명, 그리고 이 직무를 위해 성령을 선사하는 성사입니다.

구약성경의 사제상

종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사제란 선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사제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에서 구분되어 선별된 장소, 시간, 행동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의 사제상은 종교사회학적인 사제상과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과 직접적 접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과 접촉을 위해 사제를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시나이 계약 체결의 장면을 떠올려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위협적이며 생명을 좌우하는 힘을 지닌 신으로 체험했기에, 모세를 선별된 중재자로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사제상

그에 반해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봉헌하는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대사제로 칭합니다(히브 4,14). 예수님은 구약의 대사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질서에 의한 대사제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교회 공동체에는 공동체와 구분된 신분으로서의 제의적 사제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과 요한 묵시록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중요한 직책인 왕과 사제라는 칭호가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가 지닌 새로운 품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모든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룬다는 믿음이 자리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느님은 위험하고 두려운 하느님이 아닙니다. 진정한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자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벗이며, 서로는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때와는 달리 이제 신자들은 하느님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직무의 형성

병구약 시대에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창세 48,14 참조), 또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민수 27,18-20; 신명 34,9) 행해지던 안수는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의미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표지(마태 9,18; 마르 6,5; 루카 13,13 참조), 혹은 축복의 표지로서(루카 24,50-51) 안수를 하십니다. 사도 시대에도 이처럼 유대교에서 전해진 안수 행위가 직무를 맡기는 의식에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의 증언을 보면, 음식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위해서 공동체가 일곱 사람을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은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사도 6,6)라고 밝힙니다.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은사와 권위가 전달되는 성품 예식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화됩니다. 안수와 축성 기도로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은 서품자를 성화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사제직은 어떻게 나뉘고 어떤 의미를 갖나요?

성품성사에서 교회의 직무는 주교직, 사제직, 부제직의 세 품계로 나뉩니다. 먼저, 주교 서품은 여러 동료 주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교가 주교단의 일원이고, 자신의 교구 범위를 넘어선 전체 교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지역교회에 대한 지도권을 의미하고, 복음서의 수여는 복음 선포의 과제를 암시하며, 머리에 도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지는 지역교회와의 결속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사제 서품은 주교와 함께 다른 사제들이 안수를 합니다. 이는 사제들 역시 사제단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하여 주교직에 참여하며, 주교의 협조자로, 주교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가족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사제의 일차적 의무는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데에 있고, 사제 직무의 완성은 성찬례 거행에 있습니다. 동시에 사목자로서 신자들과 특별히 근접하여 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의 의무는 세례식의 거행, 성체 분배, 혼인에 입회, 노자성체 분배, 복음 선포, 장례 및 말씀 전례나 준성사의 집행과 자선과 관리의 직무입니다. 서품 예절서는 봉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단에서의 봉사와 말씀 선포의 봉사 그리고 가난한 이와 병든 이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이로써 부제는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봉사직에 임명되고, 주교 아래에서 사제와 협조하면서 봉사직을 수행합니다.

여성의 전례 참여 가능성 확대

현행 예식의 세 품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7품계이었던 것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성직에 오르기 위하여 서품되어야 할 7가지 품(品)을 칠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당

문을 여닫는 권한과 성당 종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하여 주어지는 1품 수문품(守門品), 성당 안에서 성경과 기도문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하여 주어지는 2품 강경품(독서품)(講經品), 구마를 수행하는 교회 내의 직책인 3품 구마품(驅魔品), 4품 시종품(侍從品), 5품 차부제품(次副祭品), 6품 부제품(副祭品), 그리고 7품 사제품(司祭品) 혹은 신품(神品)이라 하여 이 7품을 합당하게 받아야만 정식으로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칠품 중 부제품과 사제품을 제외한 다른 품을 없애고,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종직(侍從職: 말씀과 제대 위에서의 전례 중 제대 위에서의 전례에 사제를 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직위)과 독서직(讀書職: 독서직은 말스의 전례에 사제를 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직위)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새로운 움직임은 바오로 6세 교황님의 자의 교서 「일부직무」(Ministeria quaedam 1972) 발표 후 약 반세기가 지난 올 1월 1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의 교서 「주님의 성령」(Spiritus domoni 2021)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입니다. 남성 평신도에게 유보되었던 독서직과 시종직의 수여를 모든 평신도에게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세례를 통해 받은 보편 사제직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성품성사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직무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세례를 통해 이 직무에 초대받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안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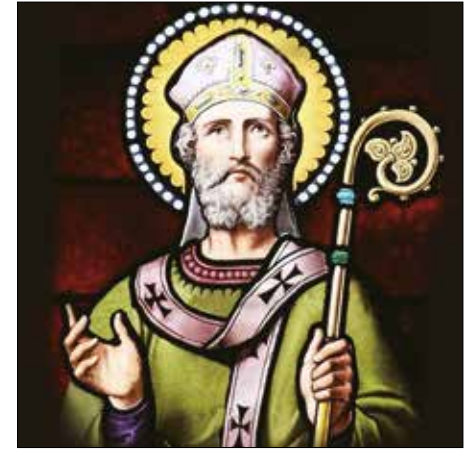
St. Anselm (축일: 4월 21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 작은형제회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유명한 성인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안셀모 성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학설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란 점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였고, 우리 인간은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점도 강력하게 남겼습니다. 더욱이 안셀모 성인은 하느님을 정의하길, 하느님은 ‘더 이상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직관적인 믿음으로부터 연역해서 그분의 존재 증명을 해낸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성인에 의해 하느님은 더 없이 크신 사랑이시며, 그런 사랑 이상으로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절대자라는 믿음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하느님에 비한다면 우리 존재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아우구스티노와 안셀모 성인, 이 두 성인의 이름 안에도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되, 우선 안셀모 성인의 이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셀름Anselm(영어식 표기)이라는 이름의 원형은 고대 게르만어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가 안세헬름Ansehlm이라고 하는데, 안스Ans는 그 뜻이 God(하느님), 헬름helm은 helmet, protection (헬멧, 보호자)라는 뜻을 지닌 두 단어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셀름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을 보호하는 도구’, 혹은 ‘하느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도구’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간직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영어식 표기가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어에서는 Anselmo(안셀모), 여성형으로는 Anselma, Elma(독일어식 표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셀모라는 표기법은 최소한 이태리어식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다른 세례명들이 주로 이태리어식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안셀모 성인은 당대 여러 가지의 논박이 오가던 가운데, 하느님 존재 증명을 직관적이고 연역적인 차원에서 전개하면서, 굉장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철학과 신학에서 굉장한 ‘긍정신학(via positiva)’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그 자체가 제1명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큰 존재’로부터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논리를 전개하여서 상당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이 아

니겠습니까? 하느님의 보호자, 변호자로서 역할을 해야하는 사람, 하느님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활약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안셀모였기 때문입니다. 신앙공동체를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 노력한 논증가로서 그는 안셀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셀모라는 이름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수호하며, 하느님의 존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영성을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4월 21일을 그의 축일로 지내는 우리 교회와 그 이름을 세례명으로 사용하는 모든 교우들은,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이 오히려 주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는 이가 된다는 그런 섭리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가톨릭 교회(신자)가 되기를 희망해야 하겠습니다. 🙏

"그대 영혼의 공방으로 들어가서, 하느님 밖으로 모든 것을 쫓아내십시오.
그분을 찾기에 도움이 되는 것 이외의 것들을 다 모조리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에 오직 하느님 그분만을 찾으십시오."

- 성 안셀모 -

교우회 소식

서초구청 천주교 교우회

주님안에서 하나되고자 하는 서초구청 직장교우회는 매월 직장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월례미사를 통하여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사 봉헌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직장공동체의 활성화 및 친목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구 성 : 서초구청 가톨릭 신자 76명
(회장: 윤국주 마르가리따 / 총무: 박효진 모니카)

- 지도신부 : 노우식 스테파노 신부님

- 활 동 : 매월 직장미사, 전국공직가족피정대회 참가, 서울시교우협의회 신앙대회 참가, 직장사목부 주관 연례피정 참가, 예비자교리 실시

기도 학교

최고의 만남 '미사'

차동욱 시몬 신부_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지도

지난 호에서 최고의 기도 시간을 미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호에서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중심으로 기도로서의 미사의 의미에 대하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일반적인 뜻인 '하느님과의 만남 이요 대화'라는 말을 미사에 대입시킬 때에도 미사는 하느님과의 가장 확실한 만남이 보증되는 시간들을 간직하고 있기에 역시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제요 신학자였던 로마노 가르디니는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지셨던 하느님의 고요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고 이를 흠송하며 이 거룩한 하루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일은 쉼의 날이지만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이며 하느님과 더욱 깊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의 의미를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한주간의 피로를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거룩하게 살도록 창조된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으로서의 참된 주일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모로 평일의 일과가 주일에도 쉽게 끊어지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일 미사 참례라도 잊지 않는다면, 가르디니 신부님의 말씀



처럼 하느님 고요의 신비를 함께하며 함께 거룩해지는 의미의 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간의 기도 중 최선의 기도를 바치며 가장 확실하게 다음 주장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 사정상 현실의 공휴일이 주일이 아닌 분들이라면 다른 평일의 하루가 꼭 주일의 의미를 간직한 시간이 되어 평일미사에 참례하는 방법 등으로 주일의 은총을 똑같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미사의 의미를 더 살펴보십시오. 미사는 우선 침묵과 집중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일주일의 거의 모든 시간을 우리는 침묵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따로 개인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 온갖 소음에 시달리며 한 주장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외부의 소음이 없는 때라도 끊임없이 내 안의 나와 수다를 떨게 마련입니다. 미사의 시작에서 우리는 어쩌면 한 주간의 처음인 듯한 침묵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서게 되고, 참회를 통해 자

신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상대인 하느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로소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전례를 통해 하느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울려 퍼지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구원역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도 말은 다른 이에게 소통과 친교의 도구가 되어 일을 이루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느님께는 구태여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당신 말씀의 힘을 발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을 발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며,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도 모든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며 돌보시는 실제적인 힘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느님의 신성이 담겨 있는 말씀은 좋은 격언을 듣는 식으로 순간의 감동이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습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구원과 해방체험으로, 또 영적 자유와 기쁨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못 느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며, 그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부들도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계심과 마찬가지로 말씀의 전례 중에 특히 복음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구원활동을 계속하신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만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다른 소리들에 침묵하며 하느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오 복음 11장 15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시오”라고 하신 것도 사실 듣기는 하지만 말씀이 주는 힘을 느끼지 못하거나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집중하여 잘 듣고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믿는 것이 미사 안에서 드리는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전례에 이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깊은 만남인 성찬의 전례를 이룹니다. 성찬 전례의 형식과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의 최후 만찬 모습에서 기원을 간직합니다. 물론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마르코 6장)’이나, ‘사천명을 먹이신 기적(마르코 8장)’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성체성사에 대한 예형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당신의 품안에 모인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실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신과 함께하는 성찬례가 영원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루카 22, 19-21.)

한편, 예수님과의 만찬은 그분의 부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식사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당신의 정체(정체)가 드러나셨고, 이어 다른 장면에서 당신의 등장에 놀란 제자들 앞에서는 먹을 것을 먼저 찾으셨습니다(루카 24장). 부활 후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당신 손수 아침을 준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요한 21장). 사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인류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아침 식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명

을 내놓는 수난과 죽음의 폭풍우 속 같은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이제 인류에게 부활의 길을 터놓으신 평화로운 새 역사의 아침! 아무도 주님께 누구 시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지난 몇 년간의 예수님과 공생활 속에서의 그 모든 의문이 풀린 아침! 이제 그리스도로 밝혀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과 그것을 살아가는 것만이 남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된 그 아침! 그 아침에 고요히 예수님과 함께 아침 서광을 맞으며 먹는 이 식사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아침 식사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성찬의 전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식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함께 식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당신을 먹으라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인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또한 같은 예수님을 모시는 모든 이가 서로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토 10,16-17).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아버지 하느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순간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나라이지요.

미사, 가장 중요한 성사이자, 말씀과 성체를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과 최고의 만남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기도 시간의 만남은 마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하나 되는 일치를 향합니다. ☪

Cornerstone



로사리오 예배당 (프랑스어: Chapelle du Rosaire de Vence, 영어: Chapel of the Rosary)

마티스 채플(Matisse Chapel) 또는 방스 채플(Vence Chapel)이라고 불리는 로사리오 예배당(Chapelle du Rosaire de Vence)은 프랑스 리비에라의 방스에 위치한 작은 가톨릭 예배당이다.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가 고안한 계획에 따라 1947년에서 1951년 사이에 건축되고 장식되었으며, 도미니코 수도회에 헌정되었다. 그것은 마티스 자신이 그의 "결작"으로 여겼으며, 마티스의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단순한 흰색 외관은 평범한 관찰자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불러일으켰지만, 일부는 20세기의 위대한 종교 건축물 중 하나로 여긴다.

1941년, 마티스는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암에 걸렸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오랜 회복 기간 특히 "젊고 예쁜 간호사"를 찾는 그의 광고에 응답한 젊은 시간제 간호사 모니크 부르주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포즈를 취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여러 개의 그림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1943년, 그녀는 인근 도시인 방스의 도미니코 수녀원에 들어가 자크마리 수녀가 되었다. 그는 결국 어린 수녀가 있는 수녀원에서 멀지 않은 방스에 집을 샀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 수녀회가 방스에서 운영하는 여자고등학교 옆에 예배당을 짓기로 한 계획을 말했다. 그녀는 그가 예배당의 디자인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지만, 1947년부터 돌기로 동의했다. 그는 77세의 나이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4년 이상을 예배당,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내부 가구, 벽화, 사제관 건축을 위해 일했다. 마티스는 가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 해 동안 냉담하였다.

이 제단은 따뜻한 갈색 돌로 만들어졌으며, 빵과 성찬의 색깔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또한 제단 위에 청동 십자가와 청동으로 만든 촛대, 그리고 작은 성막을 디자인하였다. 항상 촛불을 밝히는 천장에 매달린 연철 촛대는 연철을 만드는 특별한 전통이 있는 지역 장인들이 만들었다.

세 개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있는데, 그는 이 창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창문은 단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였고, 태양을 위한 강렬한 노란색, 초목과 선인장 형태를 위한 강렬한 녹색, 지중해, 리비에라 하늘과 성모님을 위한 선명한 파란색이다. 제단 옆에 있는 두 개의 창문은 <생명의 나무>라고 이름 붙여졌고, 그 형태는 추상적이다. 창문의 색은 모두 흰색인 예배당 내부 장식에 홍수를 일으키듯 흘러넘친다.

마티스는 세 개의 벽화를 디자인했고, 흰 타일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여 완성했다. 제단 뒤편에는 커다란 도미니코 성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창설자이자 목주기도를 가톨릭교회가 바치도록한 창시자이다. 측면 벽에는 추상적인 꽃 이미지와 성모님 그리고 아이의 이미지가 있는데 마티스는 그녀가 보통 묘사하는 것처럼, 아이를 혼자 껴안기보다는, 마리아가 세상에 그녀의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여주기로 선택했다. 예배당 뒷벽에는 전통적인 십자가의 길 14처가 있다. 14처는 보통 개별적으로 그려지지만, 그는 14처를 응집된 구성으로 하나의 벽에 통합시켰다.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7

코로나 백신과 악에 대한 협력 문제 2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악에 대한 협력에 있어서 책임성의 차이

우리가 스스로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나도 모르게 혹은 강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에 도움을 주거나 함께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악에 대한 협력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주었던 나에게 그 나쁜 행동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그러한 나쁜 행위에 도움을 주는 나의 책임도 달라지게 됩니다.

형상적(formal)/질료적(material) 협력의 차이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는 말로는 기본적으로 ‘형상적 협력’과 ‘질료적 협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형상적 협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범죄에 있어서 ‘공범’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은행에서 돈을 훔치길 바라는데, 나도 같은 의도로 그 사람을 은행까지 데려다 준다면 그것은 ‘형상적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범죄를 같이 의도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질료적 협력’인데, 의도하지 않은 협력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무 것도 모르고 살인자를 살인 현장에 데려다 준 택시 기사,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수술방을 준비한 간호사, 혹은 고문이나 생

명의 위협을 받고 나쁜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형상적 협력보다 적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도 구분할 수 있는데, 당연히 직접적 협력의 책임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했다면, 나는 마약 밀매라는 범죄에 직접 참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앞의 사례처럼 자기도 모르게 살인자를 살인 현장에 데려다 준 경우는 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자는 살인 현장에 도착했어도 살인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의 구분에는 가까운 협력/먼 협력, 적극적 협력/수동적 협력의 구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행위가 나쁜 행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먼 협력이 되며, 나쁜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수동적 협력이 됩니다. 당연히 먼 협력과 수동적 협력의 책임이 더 적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의 책임성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로 만든 백신 접종의 책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반드시 낙태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며, 현재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접종을 합니다. 또한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행위가 낙태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낙태는 백신 개발이나 접종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을 위해서 사용된 세포는 지금부터 대략 5-60년 전에 낙태된 태아에서 얻어낸 세포를 반복해서 배양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현재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해서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는 행위는 “질료적이며 간접적이고 수동적 인 먼 협력”이라고 볼 수 있고, 악에 대한 협력의 책임도 가장 적습니다. 물론 가장 적은 책임을 지닌다는 말이 이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황청 신앙 교리성의 지침

이러한 상황을 진지하게 바라본 교황청은 2020년 12월 21일 백신 사용에 대한 지침을 교우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그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흠 없는 코로나19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낙태된 태아에게서 유래한 세포주를 그 연구와 생산 과정에서 이용하여 얻은 항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사용이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 협력의 형태(수동적 질료적 협력)는 [...] 백신을 사용하는 사람 편에서는 먼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 수동적 질료적 협력을 피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❶

그러나,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백신 사용이 낙태된 태아의 세포 사용을 도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 모두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백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의 도덕적 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의 문화”를 이루어 나갈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의학과 과학의 환경 안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❷

❶ 교황청 신앙교리성, 「일부 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사용의 도덕성에 관한 공지」, <https://cbck.or.kr/Documents/Curia/Read?doc=20210010&doctype=1>.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남기!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코로나19로 집콕생활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유튜브 시청 열기가 뜨겁다.

보선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요즘 다니엘은 ‘누구에게 표를 던질까?’하며 ‘서울시장’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자 수많은 후보자 관련 영상들이 나타난다.

A유튜버 한테 들으면 “어라 그 후보가 그랬어?” 싶고, B유튜버 이야기를 들으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것 같고, C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완전 사기꾼들이 나와서 설치는 것 같다.

다니엘은 혼잣말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군.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며 저녁기도를 바치기 위해 촛불을 밝힌다.

Question

넘쳐나는 정보홍수로 판단력을 잃은 적이 있는지 얘기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서 슈퍼 유튜버로 활동하신다면 어떤 콘텐츠로 방송을 해 주실까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또한 평신도들은 직업의 전문 지식,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회생활과 관련된 덕 곧 정직, 정의, 성실, 친절, 용기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러한 덕행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 [평신도 교령 4항 평신도의 사도직 영성]

그리스도교 신자는 자기 양심을 기르며 교회의 거룩하고 확실한 교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36) 사실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며, 그

임무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며 동시에 인간성에서 나오는 도덕 질서의 원리를 자기 권위로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2코린 6,6-7)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 완전한 확신과37) 사도적 용기로, 피를 흘릴 때까지 생명의 빛을 전파하도록 힘써야 한다. [종교 자유선언 14항 교회의 사명]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베토벤의 이해(4) -
베토벤의 이른바 ‘종교논쟁’과 장엄미사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보통 베토벤 최고의 작품 하면 그의 마지막 교향곡 9번 d단조 ‘합창’(Op.125)이 연상되지만, 베토벤 스스로는 자신의 최고 작품으로 ‘장엄(莊嚴)미사(Missa solemnis) D장조 (Op.123)’를 뽑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곡이 진행된 합창 교향곡과 장엄미사는 베토벤 후기의 양대 걸작이다. 본래 가톨릭의 전례 중에서 가장 장중하면서도 규모가 큰 미사를 가리키는 라틴어 ‘미사 솔렘니스’라는 제명(題名)이 의미하듯이 4명의 독창자, 혼성 4부 합창,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 딸린 관현악으로 편성되고, 5악장(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베네딕투스, 아누스 데이)으로 이루어진 약 1시간 반이 걸리는 대미사곡이다. ‘종교적 교향곡’으로 불리울만큼 성악가들이 기악적 성악 부분을 처리할 수 있어야 연주가 가능한 작품이다. 미사에서 쓰이는 전례문에는 ‘통상문(通常文: 1년을 통해 변하지 않는 부분)’과 ‘고유문(固有文: 교회력에 의해서 변하는 부분)’이 있다. 미사곡은 전자 중에서 5개의 통상문, 즉 키리에(kyrie: 연민의 찬가), 글로리아(gloria: 영광의 찬가), 크레도(credo: 신앙선언), 상투스(sanctus: 감사의 찬가), 아누스 데이(Agnus Dei: 평화의 찬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작곡한다.

베토벤은 1818년 가장 친밀한 우정을 나눈 후원자 루돌프 대공의 올뮈츠(Olmütz, 현재의 체코) 대주교 취임이 결정되자 그 취임식을 위해 작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워낙 대규모로 구상된 미사곡인데다가 당시 여건도 좋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Missa solemnis Op.123
1 CD/ 1h 12mn 3s
HMM902427/ January 2021
Freiburger Barockorchester/ RIAS Kammerchor Berlin
René Jacobs - Conductor/ Polina Pastirchak - Soprano
Sophie Harmsen - Mezzo-soprano/ Steve Davislim - Tenor
Johannes Weisser - Bass



지 않아, 경제적 궁핍과 건강의 악화, 그리고 조카 카를의 후견인 소송에 시달리면서, 작곡은 느리게 진척되었다. 베토벤이 ‘상투스’를 쓰고 있을 때, 루돌프 대공은 베토벤의 음악이 아닌, 하이든과 훔멜의 미사 음악으로 대주교 취임식을 거행하고 말았다. 결국 1820년 3월 9일의 예정된 취임식에는 맞추지 못하고 3년이나 지난 1823년에 완성하였으니, 결국 베토벤은 5년이라는 긴 세월(1819-23)을 들인 셈이다. 제1악장 ‘키리에’의 첫머리에 ‘마음으로부터 - 또 다시 - 마음으로 가리라(Von Herzen - möge es wieder - zu Herzen gehn!)’ 라고 써 넣으며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하였다. 이렇게 보면 미사용으로 작곡을 시작한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시간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전례형식에서 자유로워진 것(즉, 컨서트홀에서 연주가 가능한 교향적 미사곡)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장엄미사의 가사 내용을 보면 가톨릭 교회의 전례음악 테두리도 어느 정도 벗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베토벤은 한 편지에서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서 깊은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의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장엄미사’가 너무 웅장하고 교향악적이어서 가톨릭 전례음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이런 비판은 베토벤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가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발전했다. 예를 들어 ‘장엄미사’의 ‘

크레도'에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같은 부분은 합창에 묻힌 채 빠른 속도로 지나가버리고 마는데, 이런 점 때문에 베토벤이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상투스'에서 '베딕투스'가 시작되기 전에 전주곡 바이올린 솔로도 너무도 아름다운 선율에 숨이 막힐 정도여서 마치 천사가 내려오는 황홀감에 빠지는 부분이지만, 그럴수록 세속적이라고 비난받았다. 그리고 '장엄미사'의 마지막 노래는 '평화를 주소서'에서 원래 기도문대로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Dona nobis pacem'라고 노래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nobis'라는 말을 빼놓았기에,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교회 밖의 비신자들에게도 평화를 달라고 하는 것이 베토벤의 뜻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음악사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 작품이 성당이 아닌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게 되리라는 걸 베토벤 자신은 처음부터 계산에 넣고 있었을까? 왜 전례용 가사를 베토벤은 수정하였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급기야는 베토벤은 과연 진정한 가톨릭 신앙인인지 궁극적인 의문까지 제기되어 이른바 베토벤의 종교논쟁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베토벤은 전기작가들에 의하면 매년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필자는 베토벤을 이해하는 마지막 편으로 장엄미사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종교논쟁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베토벤은 그때까지의 종교음악뿐만 아니라 라틴어와 신학, 철학까지 철저하게 연구하였다. 이 곡을 작곡하기에 앞서 베토벤은 라틴어 가사의 정확한 억양을 익히고 단어의 의미에 관하여 수많은 주석을 달았으며, 옛 악보와 전례절차에 대한 저서를 찾기 위하여 후원자 롬코비츠 백작과 루돌프 대공의 장서를 샅샅이 살피는 등, 미사곡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하였다. 작곡가 첼터(Zelter)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진정한 교회양식은 오로지 팔레스트리나와 그 시대 사람들의 아카펠라 양식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Ludwig van Beethoven: Missa solemnis D major op. 123
for vocal soloists, Choir, Organ and Orchestra
Orfeo • 2 CD • 81min
Order No.: C 370 942 B

Helen Donath (Sopran)
Brigitte Fassbaender (Alt)
Peter Schreier (Tenor)
John Shirley-Quirk (Bass)
Chor des Bayerischen Rundfunks (Chor)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Orchester)
Rafael Kubelik (Dirigent)



썼다. 베토벤은 팔레스트리나와 헨델이 이루어 놓은 교회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신앙고백을 이 곡에 담아내고자, 미사 원문의 연구, 그레고리오 성가와 그 이후의 교회음악을 철저히 탐구하였다. 예를 들면 '아뉴스 데이'에서 'Dona nobis pacem(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에 주어진 선율은 '메시아' 할렐루야 코러스 중 'And He shall reign for ever and ever(주는 영원히 살아계시리라)'의 선율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이 무렵의 일기장에 담긴 "참다운 교회음악을 작곡하기 위하여...모든 수도원의 옛 교회음악과 가장 정확한 번역의 운율을 두루 연구할 것. 또한 모든 그리스도교와 가톨릭 시편과 찬가의 완전한 시형(詩形)을 찾아낼 것."이라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크레도'의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에서도 사실 단어 'Crucifixus(십자가)', 'Passus et sepultus(고통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Resurrexit(부활)' 모두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화성이지만 앞 두 단어에서 그렇게 짧았던 길이가 '부활'에 와서는 그렇게 찬란하면서 길게 지속된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은 지나가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베토벤의 핵심적인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크레도의 중간

부분은 화성적이지만 마지막 부분은 대위법을 사용하여(‘푸가’는 앞 선율을 ‘쫓아가다’라는 의미이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로, 현재에도 늘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강조한 심오한 뜻이 있다. 음악학자 토비(Sir David Tovey)경은 그 마지막 “Et vitam venturi saeculi, Amen(다가올 내세의 삶을 만나이다, 아멘)”(보통은 ‘영원히 삶을 만나이다’로 번역)의 푸가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합창’이라고까지 하며 경탄해 마지않는다. 바흐의 미사 b 단조 외에는 베토벤의 장엄미사에 감히 비교하기조차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솔로 바이올린의 황홀하기까지 한 선율은 ‘베네딕투스(Benedictus)’(보통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부분)의 전주곡인데, 사실상 한 악장으로 간주해도 될 정도이지만, 대개 ‘상투스’악장에 포함되여 제2부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베토벤 시대에는 ‘상투스’가 끝나고 휴식을 갖고 다시 ‘베네딕투스’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때 성당의 오르간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베토벤은 오르간의 카덴차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바이올린 솔로로 삽입하였다. 베토벤은 ‘상투스’와 ‘베네딕투스’의 깊은 신학적 의미를 알고 있었다. 고통스런 십자가의 피비린내 나는 희생이 인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어 교회를 통해 하나로 결합되는 상징성을 베토벤은 이렇게나 아름다운 선율로 평화와 위로를 주도록 표현하였다. 그래서 ‘장엄미사’는 철학과 음악이 결합된, 인간주의와 가톨릭시즘의 교차점에 세워진 금자탑이다.

마지막으로 ‘아뉴스 데이’(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에서 ‘우리에게(nobis)’를 생각하여 비난을 받은 부분이다. ‘장엄미사’는 교향곡에 준하는 미사곡 이니만큼 마지막 ‘아뉴스 데이’ 악장은 교향곡의 4악장과 비슷하고, 론도-소나타 형식(A-B-A-Coda)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토벤은 A에서 특히 ‘내적인 평화’를 강조하는 주제를 설정하였지만, 끼어드는 B에서 난데없이 ‘전쟁 주

제’가 나온다. 베토벤은 평생 나폴레옹 전쟁 속에게 살았기에 여기서 ‘외적인 평화’를 주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가사에서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너’를 구별하는 전쟁을 무너뜨리는 외적 평화를 내세웠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문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를 생각한 베토벤이야말로 진정한 계몽주의적 가톨릭 신자였다. 아직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들어보지 않은 분은 빨리 서둘러 4악장 ‘상투스’의 중간 ‘베네딕투스’가 시작하기 직전 솔로 바이올린 연주만이라도 들어보라, 성령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내려오는 황홀감을 느껴보시라!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상부 갈릴래아 지역과 골란고원 - 아름다운 땅 위로 흘러야 할 평화

심연선 소화데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갈릴래아 호변 숙소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향해 요르단 강 발원지가 있는 이스라엘 가장 꼭대기 ‘텔 단(Tel Dan)’ 국립공원지역으로 갑니다.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운전하면 도착합니다. 티베리아스 시내에서 약 70km 정도 되고, 대중교통으로는 티베리아스에서 ‘단’ 근처 키부츠 마을까지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면 약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키부츠와 마을을 잇는 버스들이 있습니다만, 버스가 워낙 뜸하게 다녀서 곳곳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대부분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나자렛부터 시작하여 갈릴래아 호수 주변 그리고 이곳에 다다르기까지 차창 바깥으로 제법 비옥한 땅이 보입니다. 특별히 갈릴래아 상부 지역에는 과실수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봄철에는 복숭아꽃, 사과꽃, 배꽃 등이 매혹적으로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티베리아스와 같은 도시도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작은 농촌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81개의 국립공원과 400개의 자연보호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물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텔 단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단지파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지 못해서 북쪽으로 이동, 점령하고 살게 된 곳입니다. (판관기 18) 지금 현재는 고고학적으로 산의 의미를 가진 ‘텔’을 붙여서 ‘텔 단’이라고 부릅니다.

성지순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물이 많고 나무가 우거진 곳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어디서든 “우와~~”하는 탄성을 못들어 보는데, 이곳에서는 “우와~~물 봐라”하고 좋아하시며 사진을 연신 찍으십니다. 이 많은 물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 산(2,814m)에서 눈과 이슬 등이 흘러 내려오다가 약한 지표면을 뚫고 샘을 만들어 나온 물들입니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물이 나오는 단 샘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

습니다. 단 샘에서 나온 물은 단 강을 이루고 이것이 요르단 강의 지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르단은 요래이 단,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세 국가에 걸쳐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이곳에 눈이 쌓이는데 하얗게 눈덮인 헤르몬 산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만년설은 아닙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들어서면 조금씩 녹기 시작해서 늦봄에서 늦가을까지는 민둥민둥한 회색 산등성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1년 중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설량도 일정치 않아서 비가 어느 정도 듬뿍 와야 눈이 그래도 볼만하게 쌓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인들은 스키장을 만들었습니다. 곧 소개해드릴 골란고원과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이 여러 번의 전쟁 끝에 점령한 곳인데, 그러한 점령지역에 스키장을 만들고 리프트를 만들고, 스키를 타고 스노보드를 타며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헤르몬 산



바니아스

텔 단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강원도의 산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숲 같은 숲을 볼 수 있고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성지순례를 짧게 오시게 되면 이쪽까지 올라오지 않고 갈릴래아 호변 지역에서 복음을 목상하며 예수님을 만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못보신 분들이 꽤 되지요. 이곳이 그렇다고 예수님과 관련이 아예 없는 곳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바니아스 -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3)

이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칭찬을 받고 이름도 받고 교회의 열쇠도 받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곳도 현재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헤르몬 강의 지류를 이루는 바니아스 샘을 만나 보실 수 있으며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폭포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텔 단 국립공원과 바니아스 국립공원 두 곳 다 고고학 사이트로서, 구약성경 시대 때의 마을 흔적들과 제단 터, 성문, 로마 시대 때의 마을 터, 신전, 교회터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옆에 개마고원이 있는 것과 같이 헤르몬 산 옆에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산’이라고 등장합니다. 이곳에는 방목하는 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에제키서에 ‘살진 짐승’이라고 표현된 것처럼(에제 39,18) 매우 포동포동합니다. 소뿐 아니라 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편편하고 땅도 덜 끈적여 말이 살기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드루즈인들이 살고 있는데, 드루즈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아랍어를 쓰는 소수민족입니다. 산지에 주로 살면서 가축을 기르고 올리브 나무 등을 재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레바논과 시리아 등지에도

퍼져 있는데 시리아에 가장 많이 산다고 합니다. 드루즈인들이 아랍어를 사용하기에 이슬람과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희사상을 믿고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로부터 내려온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머리에 흰 모자를 쓰거나(남자) 하얀 천을 두릅니다(여자). 특히 남성들의 복장이 특이한데 바짓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바지를 입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연예인들과 예술가들이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드루즈 아저씨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비옥한 지역을 보통 서쪽 남부 해안지역, 이즈르엘 평야지역, 골란고원 지역 이렇게 세군데 드는데 이 골란고원 지역에서는 사과, 포도, 체리 등 과일재배와 밀 생산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몇몇 농장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1인당 미화 약 30달러 정도를 내면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과일을 직접 딸 수 있습니다. 따서 바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바구니에 담아온 것은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과일 채철 수확기에 많이 열립니다. 체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웬 황재냐' 하며 입이 빨강게 체리를 잔뜩 드시고 바구니 가득 기쁘게 담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산 포도주는 이곳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이곳을 지날 때에는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포탄을 맞아 부서진 옛 시리아 초소들과 많은 탱크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군대들도 있습니다. 이 골란고원 지역은 이스라엘 독립전쟁 전후로 계속해서 시리아와 잦은 분쟁에 시달리다가 1967년 6월 전쟁 때 대부분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시리아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지요. 이들은 1년

에 한번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조망 사이 너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도 강화 교동도 같은 곳에서 망원경으로 갈 수 없는 건너편 지역을 보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이곳도 그러합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하고는 국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오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다면 요르단 국경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에 가슴을 한번 더 줄이게 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골란고원에 트럼프 마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민 10명이 거주하는 정착촌을 확대하여 대규모의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룸하여 '라마트 트럼프'. 2020년에 현판을 커다랗게 만들어놓고는 축하하며 기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보다 먼저 IS로 인해 벌어진 전쟁을 피해 온 시리아 피난민들이 대거 골란고원으로 모여 들었다고 하니,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평화를 되찾고 골란고원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어떻게 사람들을 살게 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걱정은 누가 하는 것 일까요?

물 많고 땅 좋은 그곳에 훈훈한 주님의 평화가 잘 깃들기를 모든 이들이 바랄 것입니다. ㉞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제인 오스틴과 덕 윤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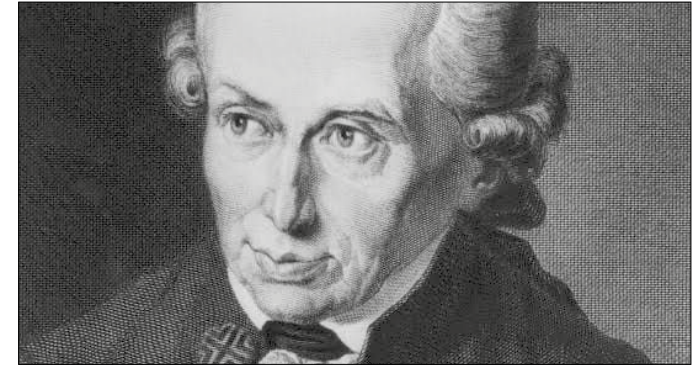
최대환 신부.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덕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인을 위한 고전으로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추천하면서 재치 있는 풍속 소설이나 우여곡절의 연애를 다룬 멜로드라마로 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철학’ 내지는 ‘덕 윤리학’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일상의 철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번 호에서 논했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조금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덕 윤리학’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짚어보고 가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철학의 분야는 대표적으로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등과 함께 윤리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윤리학은 철학의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영역입니다. 순수 이론적, 사변적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윤리학은 올바른 행위에 대한 판단과 숙고이자 더 나아가서 인생 전반에 있어 좋은 삶을 탐구하는 것이며 총체적인 가치평가의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리학에 있어서 ‘덕 윤리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윤리학은 근대 이후 크게 보면 의무론적 윤리학과 공리주의적 윤리학 두 가지 큰 흐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



Immanuel Kant (1724-1804)

다. 의무론적 윤리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인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 (1724-1804)입니다. 윤리적 행위는 어떤 이득이나 강요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도덕법 자체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칸트 윤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정언명령’이 윤리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도덕률에 대한 자유로운 무조건적인 순종을 실천이성에 따른 ‘이성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경험적이고 욕망과 감성에 좌우되는 ‘현상적 자아’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도덕적 존재로서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초월적 자아’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자아는 현상적 자아와 충돌하고 투쟁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도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덕은 자신의 욕망과 싸울 수 있는 의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윤리학은 도덕의 기초를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한 매우 영향력 있는 이론이지만 인간을 화해하기 어려운 두 세계에 속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행복원리와 도덕원리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칸트의 윤리학과 함께 근대 이후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주류를 이룬 것은 영국과 미국의 윤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인간의 ‘경험적인’ 본성과 도덕적 규범을 조화시키는 윤리적 접근입니다. 벤담이나 밀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공리주의자들의 사상에서 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현대의 복지와 국가적 차원의 재화의 분배와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한 방식의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행복주의가, 행복은 넓은 의미에서 ‘쾌락’의 증진을 의미한다는 ‘쾌락주의’의 관점에서 전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도덕적 행위는 그 행위가 가져다준 유익에 따라 궁극적으로 평가된다는 결과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공리주의와 도덕법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철저하고 순수한 동기를 요구하는 칸트적 의무론적 윤리학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칸트가 일체의 경험적 차원의 복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경험적 동기와 결별하는 의무론적 윤리학을 정립하는데 자극이 된 것은 사실 공리주의의 사상적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험론자이자 회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윤리학과와의 진지한 대결이었습니다.

공리주의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보다 인간 본성이 요구하는 자기보존과 자기실현을 향한 행복의 갈망을 윤리학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의 욕구와 가치들이 충돌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흔히 요약되는 공공의 복리라는 대부분이 동의할 만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행복을 계량 가능한 개념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과, 도덕성과 초월성이라는 인간의 또 다른 본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론적인 윤리적 숙고는 도덕과 윤리적 행위에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너무



《Pride & Prejudice (2005)》
2h 9min / Drama, Romance / Movie

나 허약하고 상대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긴 시간을 통해 공리주의가 여러 약점을 보완하고 인간사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려 애쓰는 가운데서도 본질적으로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무론적 윤리학이나 공리주의적 윤리학 모두가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한 철학적 입장이지만 각기 큰 난제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두 입장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근대 말기와 현대에 들어 활발하게 있었고, 그 돌파구로서 주목받게 된 것이 ‘덕 윤리학’입니다. 덕 윤리학은 윤리학의 새로운 길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옛 철학적 지혜의 재발견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한 고대의 덕 윤리학과 토마스 아

퀴나스에서 체계와 각론 모두에서 빛나는 정점에 이른 그리스도교 철학의 덕 윤리학 등이 덕 윤리학의 원천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덕 윤리학의 재발견은 20세기 후반 이후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덕 윤리학에서는 도덕성과 정신적 가치가 상대화 되지 않으면서도 시간 안에서의 경험을 통한 덕의 습득과 윤리적 통찰의 획득이 경험과 초월한 도덕률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올바름이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과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위 위주의 윤리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중심의 윤리학’으로의 방향 전환이 덕 윤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행위 하나하나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연속성에서 행위의 의미를 비추어보는, 보다 성숙되고 넓은 관점이 윤리학적 판단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서는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주체적이며 고유한 경험에 따른 노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에의 갈망을 고귀한 가치 내지는 도덕적 탁월함과 조화시키려는 성찰을 시행착오를 통해 행하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제인 오스틴은 자신의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성들인 엠마(『엠마』), 엘리자베스(『오만과 편견』), 엘리너와 메리엔(『감정과 이성』), 앤(『설득』)이 각각의 덕목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전형이나 우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당시에 겪는 어려움과 압력을 현실감 있게 표현합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내면의 도덕적 가치를 잃지 않고, 동시에 관념적 덕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한 개인의 인격과 개성으로서의 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Pride & Prejudice (2005)》
2h 9min / Drama, Romance / Movie

은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추상화된 선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덕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와 시대에 생생하게 뿌리내린 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인 오스틴의 작품은 덕 윤리학의 탁월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제 다음 호에서는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나누는 주옥같은 대화들을 살펴보면서, 덕 윤리학의 탁월한 예로서 이 작품을 즐겨보려합니다. 📖



티나씨의 티비보기

VR 다큐가 일깨운, 우리가 잃어버린 것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1년 전에 나는 이 지면에서 VR(가상현실) 기술로 사별 가족의 애도에 동반한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소개했다. 첨단 기술과 인간의 보편 정서를 조화시켜 호응을 얻은 이 다큐멘터리가 올해는 더 확장되어 돌아왔다. 부부 사별을 다룬 ‘로망스’ 2부작은 아내 또는 어머니를 잃은 가족들에게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상처와 슬픔, 애도와 극복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보다 반향은 적었지만 제작진이 더욱 공들였을 에피소드가 뒤따랐다.

‘VR 저널리즘’을 표방한 ‘용균이를 만났다’의 주인공은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의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당시 24세)이었다. 다큐의 절정은 세대와 신원이 다양한 열두 명이 발전소 안의 위험한 환경과 사고의 순간을 VR로 목격하는 장면이었지만, 제작진은 이에 앞서 그가 우리처럼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지닌 인격체였음을 보여주는 데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휴대전화 사진과 인터넷 접속 기록, 빼곡한 일정 메모, 저장된 영상과 음성으로 유추한 김용균은 남들처럼 취업에 고심했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썼고, 발라드를 멋지게 부르고 싶었고, 돈을 넉넉히 벌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었고, 3개월 계약직으로 얻은 발전소 업무의 힘듦을 고백하지 못한 청년이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작업자의 안전을 무시한 공간 설계와 2인 1조의 수칙마저 무시된 환경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저는 반만 하거든요”라고 자조하듯 인터뷰한 젊은 동료는, 실은 아버지를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여윈 사람이었다.

체험자들이 VR 장구를 착용하기 전에 접한 김용균은 20대 취업준비생에게는 전혀 몰랐었고, 50대 어머니에게는 마음이 아파서 더 알고 싶지 않았던 대상이었다. 체험을 마친 뒤의 김용균은 “우리와 똑같은”, “내 친구들을 보는 듯한”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그들



은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 컨베이어 벨트 앞까지 상체를 밀어 넣는 김용균을 말리고 싶었고,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을 위험에 몰아넣은 기성세대의 무관심과 무감각이 무섭다고 했다.

다큐에서도 잠깐 소개된 대로, VR 저널리즘을 통한 공감 유발 연구는 외국에서 선행되었다. 2018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 ‘토 디지털 저널리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VR에서 체험한 이야기는 “정지된 사진/텍스트 스토리보다 공감 반응을 더 많이 끌어냈고 그 결과 체험자들은 시청 후 ‘정치적 또는 사회적 행동’을 취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케이틀린 유골릭 필립스, 『감정의 미래 The Future of Feeling』에서 인용).

요컨대 VR은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공감 능력을 일깨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도록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문해 본다. 과연 인간의 이성과 감정은 VR이 아니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을 만큼 무딘가? 김용균 사건 이전의 ‘구역역 김군’을 비롯하여 뉴스에 보도된 숱한 중대 재해들은 사업주들

의 마음을 안전한 작업환경에 투자하도록 움직이는 데에 전혀 효과가 없었는가?

무더지고 상실된 공감 능력만큼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다큐에 대한 무반응과 무관심이다. 기자들이 가끔 ‘피로감’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나는 이 잔인한 말을 4대강 개발 논란과 세월호 사건 이후에 들었다. 어떤 사안이 뉴스에서 술하게 ‘소비’되면 기자들도 독자들도 더 다루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다.

정보가 범람할수록 중요한 정보가 하찮게 다뤄지는 까닭에, 사람들은 산업재해의 맥락을 묻지 않고, 김용균의 어머니마저도 가끔 자책하듯이,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그런 죽음과 안 좋은 회사를 피할” 수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이 처한 부당대우와 희생을 당연시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들의 노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날마다 5.53명(2019년 기준)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그에 비례하여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마음과 삶이 멍드는데도 말이다.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사업주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무관심이다. 🍷

성미술 이야기

백색의 순교자, 땀의 순교자

정용모 신부.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부활의 계절이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나무는 녹음으로 빛나고 식물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며 즐길 수 있다.

봄이 한창인 4월 첫 주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이다. 이날은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예수님의 삶과 모든 가르침이 참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 사건이 부활이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인은 주님 부활 신앙을 가슴에 안고 한평생 굳건하게 살았다. 이제 성인들은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뒤로 하고 천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교회에는 성인뿐 아니라 복자도 있으며 가경자(可敬者)도 있다. 복자와 가경자는 성인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지만 모두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였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안드레아, 1821-1846) 신부와 두 번째 사제인 가경자 최양업(토마스, 1821-1861) 신부가 탄생한지 200주년이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2021년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으로 선포하여 성인의 고귀한 삶과 신앙을 본받도록 하고 있다.

최양업은 한국 천주교회의 첫 번째 신학생이며, 두 번째 사제이다. 그는 1821년에 태어나 1836년 신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마카오와 북만주 등에서 공부한 후 1849년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요동 땅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사목하다가 귀국한 뒤로는 11년 6개월 동안 오로지



김형주(1947-), 가경자 최양업 신부, 2020년, 아크릴, 배론성지, 충북

선교 활동에 힘썼다. 전국의 박해받는 신자들을 찾아 성사를 주고 천주가사(天主歌辭)를 지어 널리 전파하며 신앙을 복돋아 주었다.

교회 미술의 선구자인 장발 화가는 1928년에 처음으로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 후에 여러 화가들이 김 신부의 초상화와 동상을 제작하여 우리에게 친숙하게 소개해준다. 그러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초상화는 몇 점 밖에 제작되지 않아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다. 그러던 중 작년에 김형주(이멜다, 1947-) 화가가 최양업 신부의 전신화를 그렸다.

이 땅의 복음 선포를 위해 수 없이 돌아다녔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의 산과 들이 배경이다. 제의처럼 보이는 흰 두루마리는 최양업 신부가 한평생 동안 '백색의 순교자'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빛 영대는 그의 신분이 주님의 고귀한 사제라는 것을 알려준다. 영대 끝을 장식한 십자가는 최양업 사제가 간직했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신자들을 품어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최양업 신부가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품고 있는 책은 그가 지은 '천주가사'를 엮은 것처럼 보인다. 그의 마음 한 가운데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 다니며 보았던 산과 들, 초가 마을이 있고 청포와 할미꽃, 민들레와 나팔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꽃은 박해와 고단한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하던 최양업 사제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최양업 신부가 선포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 싹 트고 꽃 피우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는 혹독한 박해의 시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경상도와 전국을 걸어 다니며 열정적으로 사목하였다. 그래서 최양업 사제를 '백색의 순교자', '땀의 순교자', '한국의 사도 바오로'라 칭송한다. 실로 최양업 신부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사도 바오로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우리와 눈을 맞추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를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다시 맞이하는 거룩한 부활 대축일 아침에.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 개인 후원: 윤국주, 전윤주
- * 단체 후원: 서초구청, 한국CLC

2021년 직장공동체 견진교리반 모집

바쁜 일상과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과 직장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견진교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견진 교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공동체는 직장사목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견진성사 : 2021. 6. 20(주일), 13:30
- * 주 레 : 손희송 베네딕토 총대리 주교

구 분	내 용
교리기간	4. 29(목) ~ 6. 3(목), 매주 목 20:00~21:00 (총 6회)
견진피정	2021. 6. 12(토), 09:30~13:00 (대면시 명동 영성센터, 비대면시 ZOOM 이용)
교리방법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리
교육비	30,000원 (교재대금, 일일피정, 사진비, 장소사용료, 꽃사지 등)
모집일시	3. 15(월) ~ 4. 16(금) 17:00
모집인원	선착순 70명
문 의	02-727-2078 / 010-4799-2078

2021 한국CLC 상반기 교육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구분	과정명	지역	기간	장소
영성강좌(6주)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서울	4/8~5/13(목)	한국CLC
기도훈련(6주)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서울	5/20~6/24(목)	한국CLC
침묵피정(2박3일)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여주	5/28~5/30(금~일)	스승예수피정의 집
		대구	6/11~6/13(금~일)	베네딕도 영성관

* 각 강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CLC 홈페이지(www.kcl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좌 일정은 교구지침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명동밥집은 한국 가톨릭교회와 서울대교구의 상징인 '명동'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입니다.

위치 : 명동 옛 계성여고 셋별관(학생식당) 1층
운영일 및 운영시간

- 주3일 운영(수, 금, 일), 15시 도시락 나눔
-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 현장배식 진행
주3일(수, 금, 일) 11:00 ~ 16:30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후원하기

신청방법 : 홈페이지 obos.or.kr 전화 02-774-3488

명동밥집 후원계좌	예금주
우리)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미한동교회본부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무통장 입금 후 본부로 연락하여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꼭 알려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이종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로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 성함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문의 02)774-3488



Tree of Life

Stained Glass behind the Altar in the Chapel of the Rosary at Vence by Henri Matisse

1948 - 1951/ Abstract Expressionism

Location: Chapelle du Rosaire de Vence (Matisse Chapel), Vence, France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